

Jeffrey Hudon 박사, 성서 고고학, 14회, 사사기의 이스라엘 정착

© 2024 Jeffrey Hud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Jeffrey Hudon 박사와 그의 성서 고고학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사사기의 14회기, 이스라엘의 정착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고대 이스라엘의 모습을 포착하고 요약한 그림 중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도원에서 포도 수확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동체가 보입니다. 여기에는 농작물, 특히 수확 기간 동안 마을을 조심스럽게 감시하는 망루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이는 계단식 농사도 있고, 계곡의 곡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의 목가적인 풍경과 지형과 지형이 어떤 모습인지 정말 멋진데요.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주거지인 방 4개짜리 집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기원전 8세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에서, 아마도 유다에서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그들이 성벽이 없는 마을을 가질 수 있었고, 자신을 보호하지 않고 수확에 집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외국 침략자들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정착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이 시대는 다시 사사 시대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작품이 있습니다. 심사위원 시대를 다룬 최근작이자 최근작이 아닌 작품들입니다. 아비 파우스트(Avi Faust)는 판사 시절 이스라엘에 대해 일종의 인류학적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훌륭한 책. 윌리엄 G. 데버(William G. Dever)는 『초기 이스라엘인은 누구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들은 어디서 왔어요? 그는 다시 토착 기원 모델을

따릅니다. 이스라엘 핀켈스타인(Israel Finkelstein)의 책은 그가 여전히 좋은 자료를 집필하고 있던 1988년에 출판되었습니다.

그는 이때 평화적인 이민을 더 주장했습니다. 이제 그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원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렌스 스테이저(Lawrence Stager)는 이스라엘 정착에 관한 훌륭한 장인 정체성 형성(Forging an Identity)을 썼는데, 나는 그것이 성경 세계에서 그 장의 이름이라고 믿습니다.

Stager의 탁월한 대우와 구매하기에 좋은 책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집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파라오 메르넵타 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중요성이 부여된 이 상대적으로 작은 파라오는 성서 역사에서 활약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원정을 했고 가나안을 습격했다고 말할 수 있으며 고맙게도 자랑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습격에 대해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국가 또는 백성을 언급하는 기념물인 비석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카르나크 신전의 벽 중 하나인 카르나크 신전 입구에 그가 실제로 그의 비석 전체를 일련의 부조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Frank Yurco는 이들, 또는 Anson Rainey는 여기에 묘사된 이들 인물이 실제로 고대 이스라엘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메르넵타 비석 의 본문은 대략 기원전 1205년입니다. 이스라엘 부족들이 정착하여 마을과 집과 공동체를 건설하던 사사 시대의 시작 바로 그 시점에 그는 모든 것을 막았습니다. 그가 약탈하고 파괴하고 유린한 이 도시들. 그런 다음 그는 이스라엘에 옵니다. 그곳의 결정 요인은 국가나 영토가 아니라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황폐되었지만 그 씨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과장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가 농작물을 망쳤거나 생식 능력을 차단했다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는 여기서 단순히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병거 등을 가지고 이스라엘 농부 몇 명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비석에서 그것을 강화했습니다. 거의 각주 같은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가장 비판적인 학자들조차도 이스라엘이 기원전 1205년에 가나안 민족으로 존재했음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원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갖 종류의 체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걸, 이걸 아니고, 이걸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으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메르넵타가 실제로 성지, 심지어 예루살렘에도 수비대를 두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네프타의 물은 아마도 메르넵타를 의미했을 것이다. 좋아, 네프타의 물, 이것은 여호수아에서 이 문서를 작성하는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지만 메르넵타는 그것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즉, 그 텍스트는 예루살렘 서쪽의 네프타 물입니다.

앞서 우리는 도자기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도자기에는 다시 몇 가지 민족적 식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철기 시대의 성서 역사에서 나중에 더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초기에도 수년 동안 깃변 항아리는 수년 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왜 칼라림항아리라고 불리는가? 음, 여기 위쪽 가장자리 근처에 사무직 칼라처럼 보입니다.

Albright는 자신이 발굴한 도자기의 이름을 따서 그것을 Tel Bet- Mirsim 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가져온 뚜렷한 이스라엘 형태로 확인되었습니다. 글썄요, 올브라이트가 그 이름을 사용한 이후 수십 년에 걸친 추가 연구에 따르면 이들 중 많은 것이 이스라엘 유적지에서 발견되지만 배타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칼라 테두리 항아리를 사용하는 가나안 사이트와 기타 비이스라엘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들에는 변형이 있습니다. 단(Dan)에서 발견된 북쪽 형태인 긴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앤드류스에는 요르단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바로 이 형식에 대한 박사 학위 논문을 쓴 학생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종 식별자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 발견했을 때 해당 사이트를 이스라엘인으로 식별하기 위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인이

광범위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도자기가 가나안의 도자기와 어떤 면에서 독특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 그러나 그것은 매우 기본적이고, 두껍고, 무겁고, 투박하고, 칠하지도 않았고, 어떤 디자인으로도 디자인되지 않았고, 어떤 식으로든 장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목적을 달성했고 실용적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솔로몬의 통치 기간과 그 이후에도 도자기가 매우 아름답고 예술적이며 사랑스러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멋진 도자기이지만 아주 기본적인 종류의 평범한 갈색 포장지이거나 아주 아주 단순한 것이지만 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정착 초기인 이스라엘 당시의 다양한 형태의 냄비입니다. 좋아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포도 수확을 그린 그림에서 방이 네 개 있는 집의 그림이나 묘사를 봤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이스라엘 주택 형태인 방 4개짜리 주택을 표현한 또 다른 예술가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르단의 Ironwood 사이트에 이러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 4개짜리 주택은 기본적으로 앞면에 출입구가 있고 뒷면에 넓은 방이 있는 직사각형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넓은 방에는 칸막이가 있어서 여러 개의 방이 될 수 있지만 여기에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 이상의 방이 있으며, 이는 하나의 방으로 간주됩니다. 그런 다음 입구를 향해 하나, 둘, 셋의 세 개의 방이 있습니다.

이 방은 별도로 벽으로 둘러싸여 있거나 단순히 크기를 구분하기 위해 기둥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스라엘의 방 4개짜리 집이라고 불립니다. 이제 대부분의 이스라엘 Iron One 및 Iron Two 사이트에는 이러한 스타일의 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곳은 요리나 동물 관리를 위한 공간입니다. 밤에는 안전을 위해 동물을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여기 뒤쪽에 있는 것은 보관용일 수도 있습니다. 겨울에는 지붕이, 아니면 여기처럼 2층짜리 집은 주거용으로 쓰이기도 하고, 더운 여름 밤에는 확실히 침실로 쓰이기도 했죠. 그리고 동물의 질서 등 때문에 동물들과 함께 자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그런 식으로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뒷방이 포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어 기능도 수행했습니다. 많은 경우, 이는 다른 집에 함께 부착되어 실제로 거주지, 마을 또는 농장 주위에 주변 벽, 포대 벽을 만들기 때문에 포대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많은 변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개의 수조나 구덩이가 발굴되었는데, 발굴되었지만 매우 다른 변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방 4개짜리 집은 뒤쪽에 넓은 방이 하나 있고 앞쪽에 평행한 방이 3개 있습니다. Isbet 현장에서 부분적으로 복원된 매우 큰 방 4개 주택 사르타.

이것이 성경의 에벤에셀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트를 방문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들은 그것을 다시 수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측면 입구가 있고 여기서 기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 하나, 방 두 개, 방 세 개가 부분적으로 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넓은 방. 이곳은 아마도 이스라엘 정착 당시 에벤에셀에 살았던 엘리트들을 부르고 싶은 마을 추장이나 무크타르를 위한 매우 큰 집입니다. 에벤에셀 또는 이스벳 사르타는 방문하기 좋은 곳입니다.

지금은 그 주변에 다 건설됐어요. 하지만 당신은 Isbet 의 현장에서 있습니다 사르타 와 서쪽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라사 에인(Rasa Ein) 야르콘 강의 수원지 바로 주변에 물이 풍부한 해안 평야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블레셋 사람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Isbet 주변 지역 사르타는 언덕이 많고 험준하며 바위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매우 험난하고

바위가 많은 지형, 산악 지형에서 생계를 꾸려나가려고 노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은 단지 1마일 떨어진 곳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단지 물이 잘 흐르는 아름다운 땅,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던 농지를 가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한 마음속으로,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 대신에 이런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그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포대 벽 역할을 하는 집의 뒤쪽 넓은 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정착촌의 외벽이 있는데, 포대입니다. 그리고 집들은 다시 이것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이번에도 재건축입니다. 나는 이것이 브엘세바의 초기 지층인 브엘세바이거나 아마도 막대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Central Hill Country의 슬라이드를 볼 때 테라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여기 테라스의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여전히 사용 중입니다. 아마도 팔레스타인 농부들이 이곳에서 이것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수세기에 걸쳐 파손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물, 물, 빗물이 이 언덕에 떨어져 테라스를 통해 스며들어 이 모든 집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테라스하우스 예시입니다.

테라스하우스 예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식사에 대한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사기의 역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일종의 타임라인을 봅니다. 실제 정복과 정착의 아주 초기 단계이다. 그리고 철기시대 1, 2시대에 이르면 사사기에 나오는 사건들이 다루어지는 기간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약의 모든 입문 수업에서 가르치는 사사기의 주기에는 이스라엘이 다시 평화롭고 모든 것이 괜찮았고, 이스라엘이 죄를 지은 다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주기, 즉 신학적인 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재판관이나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악순환은 계속되고, 점점 더 심해집니다. 여러 면에서 사사기는 매우 우울한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내전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종의 외부 위협이 아니라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주요 판사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리더십을 발휘했던 일반적인 영역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좋아요, 그럼 사사기를 역사적 자료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은 지리적으로 사건을 정리하고, 장기간의 망원경을 짧은 기간으로 정리한 일종의 분석적 군사 보고서로 인식됩니다. 이것은 평화의 시기를 소중히 여기는 군사 캠페인에 대한 요약 설명이며, 동시대 아시리아 왕인 티글라트-필레세르(앗시리아의 첫 번째 왕)와 유사하며 흥미로운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의 유사성은 초기 철기시대와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사사기 1장은 다른 기록과 달리 실패에 대한 불평보다는 자랑이 반정복적 설명이라는 점이다. 정치적 선전이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방식, 행한 방식은 꽤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어떤 종류의 자랑스러운 계정도 아닙니다. 정말 정말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독특한 일입니다.

모든 설명, 역사적 설명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좋은 것입니다. 좋아요, 이제 우리는 사사기의 초기 장들에 대해 몇 가지 요점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이웃 국가들은 군사 교전 전에 그들의 신들과 상의했을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아랏과 호르마가 네게브 사막에 있는 두 곳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는 성공 뒤에 성공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사기에서는 많은 땅이 정복되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강성했던 해안 평야와 계곡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 상속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나할롯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종족이나 가족, 씨족에게 주신 땅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이 이후의 기록, 이후의 성경 기록에 다시 반영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시험인 니사는 그분께 대한 충성심과 신실함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모두 사사기에 나오는 신학적 요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사기 1:1-20에 흥미로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유다 지파의 영토가 된 유다 남부 지역이 정복되었습니다. 이것은 책이나 두루마리에 나오는 마을인 드빌 또는 기랏 세벨이라는 이름의 가나안 도시를 정복하고 점령한 사건입니다.

이곳 역시 헤브론 남쪽의 산간 지방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열두 명의 정탐꾼 중 한 명인 갈렙은 드빌을 정복한 사람에게 그의 딸 악사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사인 웃니엘이 그 성을 빼앗고 그 땅과 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빌은 나중에 레위 사람들의 도시가 되어 계속되었습니다. 자, 데비르는 어디에 있나요? 우선, 윌리엄 폭스웰 올브라이트(William Foxwell Albright)는 헤브론 서쪽의 구릉지 서쪽에서 Tel beit-Mirsim 이라고 불리는 유적지를 발굴했습니다. 우리는 이전 슬라이드쇼에서 그 사진 몇 장을 보았습니다.

beit-Mirsim이 성경적 Debir이었다고 평생 동안 매우 격렬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직업 역사가 성경 본문의 데비르(Debir)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학자들은 Tel beit-Mirsim이 서쪽으로 너무 멀기 때문에 Albright에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산간 지방이 아닌 세펠라 동쪽의 세펠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성경 본문은 구체적으로 유다 산간 지방에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독일 학자 쿠르트 골링(Kurt Golling)은 헤브론 남쪽의 키르베트 라부드 (Khirbet Rabud)라는 유적지를 발견했습니다 .

그는 해당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Khirbet Rabud이 Tel beit-Mirsim 이 아니라 Debir에 가깝다고 제안했습니다 . 우리는 올브라이트가 엄청난 명성을 누렸다는 점을 이해해야 하며, 올브라이트가 말하자면 학문적으로 당신의 삶을 당신의 손에 맡기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매우 강력한 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브라이트와 같은 거대 인물은 비록 훌륭했지만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올브라이트는 틀렸습니다. 이제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이스라엘 학자이자 고고학자인 모셰 코 차비(Moshe Kochavi)가 키르베트 라부드 (Khirbet Rabud)를 발굴하여 사사기에 언급된 샘인 두 개의 샘을 발견하고 데비르와 일치하는 직업 역사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Khirbet Rabud은 당시 대부분의 학자들이 Tel beit-Mirsim이 아닌 Debir로 받아들였습니다 .

그러나 올브라이트는 죽기 전에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말을 썼습니다. 나는 아직도 Tel beit-Mirsim 이 Khirbet, 아니 오히려 Debir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차비 와 그 이전의 쿠르트 골링이 옳았다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고학계의 권위자들은 조심하세요.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틀릴 수 있습니다. 올브라이트도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제 다음 사사는 베냐민 사람인 에훗이라는 이름의 매우 화려한 사람을 모압 족속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의 현 시점에서 이것은 훌륭한 후기 청동기 시대 초기 철기 시대 도자기입니다. 에글론은 모압의 매우 풍만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리고에 사업장을 세웠는데 반드시 델 강변은 아니었지만 샘 근처 여리고 부지에 인접해 있었고 거기에 궁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에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비병들을 지나쳐 에글론과 개인 접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검이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에글론은 단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칼로 에글론을 찔렀습니다.

에글론은 너무 살이 찌서 칼을 빼낼 수가 없었습니다. 에글론의 피부의 지방 주름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에훗은 도망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 모압 사람들을 이기게 했습니다.

또 모압은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했습니다. 이것은 북부 카락 고원의 발루아 유적지에서 발견된 발 루아 비석입니다. 제 생각에는 1930년대에 발견된 것 같습니다. 현재 요르단 국립박물관에 있습니다.

아마도 그 시기는 에글론 시대쯤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에글론을 연결할 수 없습니다. 여리고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종려나무 성으로 보아 다말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이 여리고였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모릅니다.

그런데 여리고에서 에글론의 궁전으로 보이는 궁전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궁전에 대한 설명을 보면 그곳이 베이트 할라니 궁전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터키의 Tell Tayinat 에 있는 전형적인 Beit Halani 궁전의 개요입니다 .

그리고 에글론의 문에 달린 자물쇠를 여기에 재현했습니다. 이제 이 에피소드에 대한 Baruch Halperin의 훌륭한 기사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Bible Review 저널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히브리어는 매우 조잡하고 거친 생각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에훗은 왕궁에서 탈출했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신하들이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문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변소를 통해, 화장실을 통해 탈출하고, 변기를 통해 내려와 그 길로

궁전에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에글론의 죽음과 에훤이 그 궁전에서 탈출한 것에 대한 매우 세속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에 나오는 드보라와 바락의 시대를 묘사한 당시의 사진들. 여기에 다시 다볼 산과 이스라엘 계곡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사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헤롯의 봄에 대한 이전 그림을 다시 보았습니다. 이 그림은 기드온이 사사로 재직하는 동안 군대를 선발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모레산인데, 미디안 진영이 이곳 계곡에 있었을 것입니다. 기드온의 군대는 그 성을 에워싸고 항아리를 깨뜨린 다음 그날 밤에 미디안 사람들을 그 골짜기에서 몰아낼 때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사기 시대의 두 가지 성경적 사건에 대한 일종의 아름다운 견해를 제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의 주요 적에게 갑니다. 바로 바다 민족이었습니다. 바다 민족(Sea Peoples)은 12세기 초에 지중해 동부 해안을 침략한 에게 해 세계(반드시 같은 지역 출신은 아니지만 에게 해 세계 출신)의 5개 민족으로 구성된 그룹입니다.

Medinet Habu 의 깃털 머리 장식을 한 블레셋 사람의 이집트 묘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을지에 대한 예술가의 묘사입니다. 제 20대 왕조의 왕인 람세스 3세의 장제전은 바다 민족에게 믿을 수 없을 만큼 믿을 수 없을 만큼 역사적인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제전의 벽에는 람세스 3세와 람세스 3세 사이의 해상 및 육상 전투가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배와 육지를 통해 다시 이집트를 침공하는 이집트 군대와 바다 민족.

이집트인들은 바다 민족들을 이집트 밖으로 붙잡고 밀어낼 수 있었지만, 그것은 정말로 이집트 세력의 뒤통수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 이후 이집트는 결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그 모습이 어떠했을 것인지에 대한 예술가의 묘사입니다.

배를 타고 도착하는 바다 민족과 전투를 벌이는 이집트 군인들. 그리고 그것은 모두 묘사되어 있으며, 메디넷 하부(Medinet Habu)에 있는 장례 사원의 벽에는 독특한 옷을 입고 독특한 다섯 민족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다루는 사사기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는 1940년대, 1949년 삼손을 할리우드에서 묘사한, 여러분을 웃게 해줄 친절이 있습니다. Hedy Lamarr 와 Victor Mature는 Samson과 Delilah의 타이틀 역할을 맡았습니다. 여기의 언어는 영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독일판입니다. 삼손과 데릴라. 헤디 라마르 (Hedy Lamarr)가 오스트리아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시 성경 이야기를 바탕으로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들려는 할리우드의 초기 시도였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텔 카실레 에 있는 블레셋 사원이나 초기 현대 이스라엘 발굴 작업 중 하나인 블레셋 정착지 텔 카실레 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뭔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고고학이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전형적인 것입니다. 즉, 이것은 현재까지 Tel es-Safi에서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블레셋 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성전.

아직 제대로 발표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완전히 발굴된 블레셋 성전입니다. 이곳은 블레셋 수도 중 하나가 아니라 더 작은 블레셋 정착지이기 때문에 작지만 여전히 블레셋 성전입니다. 이 사원의 가장 큰 특징은 팔 길이만큼 떨어진 두 개의 기둥이 지붕을 받치고 있다는 점인데, 그 기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삼손의 삶을 생각한다면, 삼손이 가자에 있는 성전을 무너뜨렸고, 그 성전 안에서 모든 블레셋 사람들과 자신도 죽었다는 것을 즉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이 작은 블레셋 마을에서요. 우리는 그 이름을 모릅니다. 현대 이름은 Tel Et- Qasile 이지만 사원 건축은 특정 문명이나

특정 인종 그룹에서 동일한 경향이 있으므로 가자 사원과 다른 주요 블레셋 진원지에는 아마도 두 개의 주요 기둥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붕 위로.

그러면 그것이 삼손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증명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지만 삼손의 이야기를 실제 삶의 Iron One 맥락에 두는 것은 확실히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사사기, 아이언원(Iron One) 시대 당시 사사들의 명단과 그들이 활동했던 지역들입니다. 요단강 양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들의 활동에 참여한 사사들의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Jeffrey Hudon 박사와 그의 성서 고고학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사사기의 14회기, 이스라엘의 정착에 관한 것입니다.